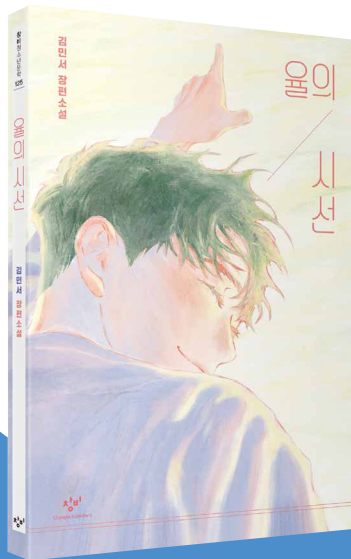


서로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

『울의 시선』
김민서 장편소설





책 소개

주인공 안울은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발을 보는 중학생이다. 친구들과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인간은 이기적이고 무감각하며 무정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울은 타인과의 진심 어린 관계나 도움을 주고 받는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타인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울을 비정상이라고 여기거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탓이라 말한다. 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산책을 나간 어느 날, 울은 쓰레기장에서 상처투성이 맨발로 죽은 고양이를 안고 있던 이도해를 만난다. 울의 머릿속에는 도해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고, 얼마 뒤 학교 체육 시합에서 다시 도해를 마주친다. 도해는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이자 왕따로 비정상 취급을 받고 있다. 하늘 보는 것을 좋아하는 도해를 만나기 위해 옥상을 찾은 울은 도해와 대화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진심과 감정을 나누기 시작한다.

시한폭탄 같은 감정을 꼭꼭 숨겨 놓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겼던 울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쓰지만 실은 두려움에 고립을 택한 외로운 존재이다. 심리적 상처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꿈을 갖지 않는 울에게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하여 소설로 감정과 마음을 써 보도록 제안한 도해의 응원은 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는 죄책감과 상처가 겹겹이 쌓여 스스로 무의미한 존재라고 여기던 울을 일으킨다.

울은 공부도 잘하고 인기가 많아서 늘 부러워하던 서진욱에게도 그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해관계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진욱에게 손을 내밀고 돕게 된다. 타인의 눈은 늘 심연과 같아서 쳐다보지 못했던 울이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심연이었음을 깨닫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상처 입더라도 그 과정에서 강인해지는 것이 모순적이면서 매력적인 삶의 방식을 역시 깨닫게 된다. 인간을 이해하고 타인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된 울의 모습은 변화와 성장을 보여 준다.

타인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고립을 택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그러한 마음을 지녔던 울에게 자신을 이입해 공감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그를 응원하며 어느새 스스로에게 따스한 위로를 건네게 된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마음을 열며 가까워지고, 자신을

긍정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혼란스럽고도 외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다정하게 안아 주는 소설이다.



수업의 초점

1.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책 대화하기

이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주인공 안율이 타인과 관계, 친구에 대해 가진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율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물들과 생각, 관계의 변화를 자신이 읽은 대로 그려 정리해 보고, 모둠 친구들과 비교하며 서로 다르게 이해한 부분을 공유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잡아 가며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심화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작품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 대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질문을 만들 때는 작품에 대한 감상을 토대로 인간, 관계, 친구, 자기 자신 등에 대한 생각을 더해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작품 자체에 대한 질문,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작품과 연결한 질문을 만들고 모둠별로 공유하여 ‘책 대화’를 해 보자.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친구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면서 모둠 친구들과 간의 경계도 허물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책을 매개로 친구 인터뷰하기

타인에 대한 경계나 두려움은 잘 모르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책 대화를 바탕으로 인터뷰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해 파악하고 존중해 보자. 타인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의 속마음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보여 줄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책의 내용이나 책 대화에서 다루었던 질문을 토대로 모둠 내에서 공통 기본 질문 두 개를 만들고, 각자 상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세 개 이상 써 보자. 단답형 질문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친구의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만들자. 서로의 답변을 더욱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대화를 이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활동		비고
1	읽기 전 활동	제목과 표지를 보며 질문하고 생각 나누기	
		'시선', '친구', '관계'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로 아홉 칸 적기 후 이야기하기	
2	읽기 중 활동	독서 일지 쓰며 책 읽기	
3			
4			
5			
6			
7	읽기 후 활동	모둠별로 인물 지도 그리기	
8		책 대화하며 친구 인터뷰 질문 만들기	
9		친구 인터뷰하기	
10	평가	서평 쓰기	
11	추가 활동	인물들에게 주고 싶은 시 처방전 쓰기	

●●● 읽기 전 활동

| 1차시 |

① 활동 1 제목과 표지를 보며 질문하고 생각 나누기

1.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의 책일지 예상하여 이야기해 보자.

— 독서를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

2. 표지를 보고 소설의 내용을 추론해 보자.

— 표지의 색깔, 인물의 손이 향하는 방향, 인물의 표정 등에 주목하도록 안내한다.

--

② 활동 2 ‘시선’, ‘친구’, ‘관계’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로 아홉 칸 적기 후 이야기하기

1. 『울의 시선』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을 읽기 전에 ‘시선’, ‘친구’, ‘관계’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표 안에 적어 보자.

— 소설을 읽기 전, 인간관계와 친구, 시선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 보는 활동이다.

— 각 칸에 쓴 단어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본다.

(예시)

관심	용기	배려
어려움	관계	우정
함께	고민	친구

활동 1 독서 일지 쓰며 책 읽기

- 읽은 내용과 읽으며 한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 수업 종료 15분 전 읽은 부분까지 라벨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울의 시선』 함께 읽기	년 월 일 교시
<p>읽기 점검표</p>	<p>오늘 읽은 페이지 (~)쪽</p> <p>오늘 읽은 부분을 해시태그로 표현해 보자 (예시) #거짓말, #진심은_중요하지_않아, #수단</p> <p>-----</p> <p>-----</p> <p>-----</p>
<p>인상적인 부분</p>	<p>문구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p>
<p>인상적인 부분으로 고른 이유</p>	

활동 1 모둠별로 인물 지도 그리기

- 독서 일지를 참고하여 인물들의 관계와 변화를 정리한 인물 지도 그리기 개인 활동을 한다.
- 개인 활동 후 인물 지도와 생각을 모둠 친구들과 공유한다.
- 모둠 활동 후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깨닫게 된 것이나 소감을 작성한다.

『울의 시선』 인물 지도 그리기	년 월 일 교시
인물	안울, 서진욱, 김민우, 김동휘, 이도해, 김지민 등
인물에 대한 정보	친구나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의 변화, 인물 간의 처음 관계와 변화, 안울과의 관계 등
인물 지도	

활동 2 책 대화하며 친구 인터뷰 질문 만들기

- 책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와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심화 감상 활동이다.
- 책 대화를 나눈 후 이를 토대로 작품 자체에 대한 질문,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작품과 연결한 질문을 만든다.
- 책 대화에서 만든 질문과 대화를 중심으로 친구 인터뷰에서 궁금한 질문을 두 가지 만든다.

『울의 시선』 책 대화	년 월 일 교시
1. 인상 깊은 부분과 그 이유, 작품 전체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함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자.	
질문	
2.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돌아가며 이야기하고,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종합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자.	
질문	
친구 인터뷰 질문 만들기	

(예시)

『울의 시선』 책 대화	년 월 일 교시
1. 인상 깊은 부분과 그 이유, 작품 전체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함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자.	
질문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안율이 이도해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2.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돌아가며 이야기하고,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종합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자.	
질문	친구에게 진심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 인터뷰 질문 만들기	우리 반에서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다면 누구였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 친구나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면 언제 그랬어? 그럴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보았는지 궁금해.

활동 3 친구 인터뷰하기

- 친구를 더 깊이 알아 가는 인터뷰 활동을 통해 소설 읽기의 경험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다.
- 모둠에서 만들었던 질문 두 가지와 인터뷰어로 정해진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개인 질문 세 가지를 포함한 다섯 가지 이상의 질문을 준비하여 친구 인터뷰를 진행한다.
- 인터뷰어-인터뷰어 짝은 제비뽑기나 다른 모둠의 친구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다.
- 녹취 앱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몰입하며 대화하도록 하고, 인터뷰 활동 후 녹취록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답변을 정리한다.
- 짝 활동 후 희망자에 한하여 친구 인터뷰 내용을 학급 구성원 전체와 공유한다.

『울의 시선』 친구 인터뷰	년	월	일	교시
1. 우리 모둠에서 만들었던 친구 인터뷰 질문 두 가지를 아래에 적어 보자.				
2. 인터뷰 짝이 된 친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세 가지 만들어 보자. (단답형 질문 혹은 막연한 질문이 아닌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거나 답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질문해 보자.)				
3. 인터뷰 짝이 된 친구와 함께 돌아 가며 인터뷰를 진행해 보자. 녹취 프로그램을 켜고 서로 준비한 질문과 더불어 친구의 말을 경청하면서 답변에 대한 후속 질문도 해 보자.				
4. 녹취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에 대한 친구의 답변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예시)

『울의 시선』 친구 인터뷰	년 월 일 교시
1. 우리 모둠에서 만들었던 친구 인터뷰 질문 두 가지를 아래에 적어 보자.	
우리 반에서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다면 누구였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	
친구나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면 언제 그랬어? 그럴 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보았는지 궁금해.	
2. 인터뷰 짝이 된 친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세 가지 만들어 보자. (단답형 질문 혹은 막연한 질문이 아닌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거나 답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질문해 보자.)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거절을 잘 못 하는데, 혹시 부탁을 들어주기 곤란한 상황에서 거절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네가 생각하는 '친구'란 어떤 사람이야? 어떤 관계가 친구라고 생각해?	
나는 안울처럼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거든.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 네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어?	
3. 인터뷰 짝이 된 친구와 함께 돌아 가며 인터뷰를 진행해 보자. 녹취 프로그램을 켜고 서로 준비한 질문과 더불어 친구의 말을 경청하면서 답변에 대한 후속 질문도 해 보자.	
4. 녹취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에 대한 친구의 답변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울의 시선』
시 처방전

년 월 일 교시

1. 『울의 시선』에서 인물을 한 명 골라 그가 가졌을 법한 고민을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써 보자.

내가 고른 인물:

인물의 사연(고민):

2. 인물의 사연(고민)에 대해 처방해 주고 싶은 시를 골라서 아래에 옮겨 쓰고, 이 시를 고른 이유를 적어 보자.

처방해 주고 싶은 시:

이 시를 고른 이유:

(예시)

『울의 시선』 시 처방전	년 월 일 교시
1. 『울의 시선』에서 인물을 한 명 골라 그가 가졌을 법한 고민을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써 보자.	
내가 고른 인물: 안울	
인물의 사연(고민): 타인이 나를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조차 스스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단언하고는 한다. 아무도 내 마음에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2. 인물의 사연(고민)에 대해 처방해 주고 싶은 시를 골라서 아래에 옮겨 쓰고, 이 시를 고른 이유를 적어 보자.	
처방해 주고 싶은 시: 김응 「웃는 버릇」(『웃는 버릇』, 창비교육 2023) ※시의 전문을 옮겨 씀 이 시를 고른 이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을 때, 책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를 만나기도 해. 그럼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내 마음에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믿게 되기도 하고, 적어도 이 시를 쓴 작가와 이 시의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마음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네 마음을 알고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씩 네 마음을 보여 준다면 어떨까? 네게 그런 용기를 선물해 주고 싶어.	



『유원』 백은유 장편소설 (창비 2020)

타인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게 되었던 율. 그 이유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한 사고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갖게 되는 죄책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담감, 혹은 자신의 감정이나 진심을 숨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감정과 내면의 성장을 잘 보여 주는 또 다른 작품으로 『유원』이 있다. 화재 사고의 생존자인 유원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언니와 아저씨에게 가지는 양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생존자라는 꼬리표 없이 유원을 온전히 대해 주는 친구들을 통해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용기를 내며 변화하는 모습 역시 담는다.

『우리는 마이너스 2야』 전앤 장편소설 (사계절 2023)

안울은 관계 맺기에 서툰 아이다. 『우리는 마이너스 2야』에도 관계 맺기에 서툰 미주가 등장한다. 세아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은 후 같은 반 미주에게 귀신이 된 세아가 찾아온다. 빌려줬던 오백 원을 돈이 아니라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아. 기억이 나지 않는 미주는 세아를 도와주기로 한다. 세아는 미주에게 학교에서 기피 대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자신의 쌍둥이 세정과 친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미주는 어쩔 수 없이 세정을 만나며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학교에서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며 외로움을 느끼고, 스스로 고립을 택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결국 혼자 살 수 없고 돌봄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빛을 지고 깊은 관계로 은유하여 표현했다.